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봉림리 공장부지 조성 文化遺蹟 地表調査 報告書

2008.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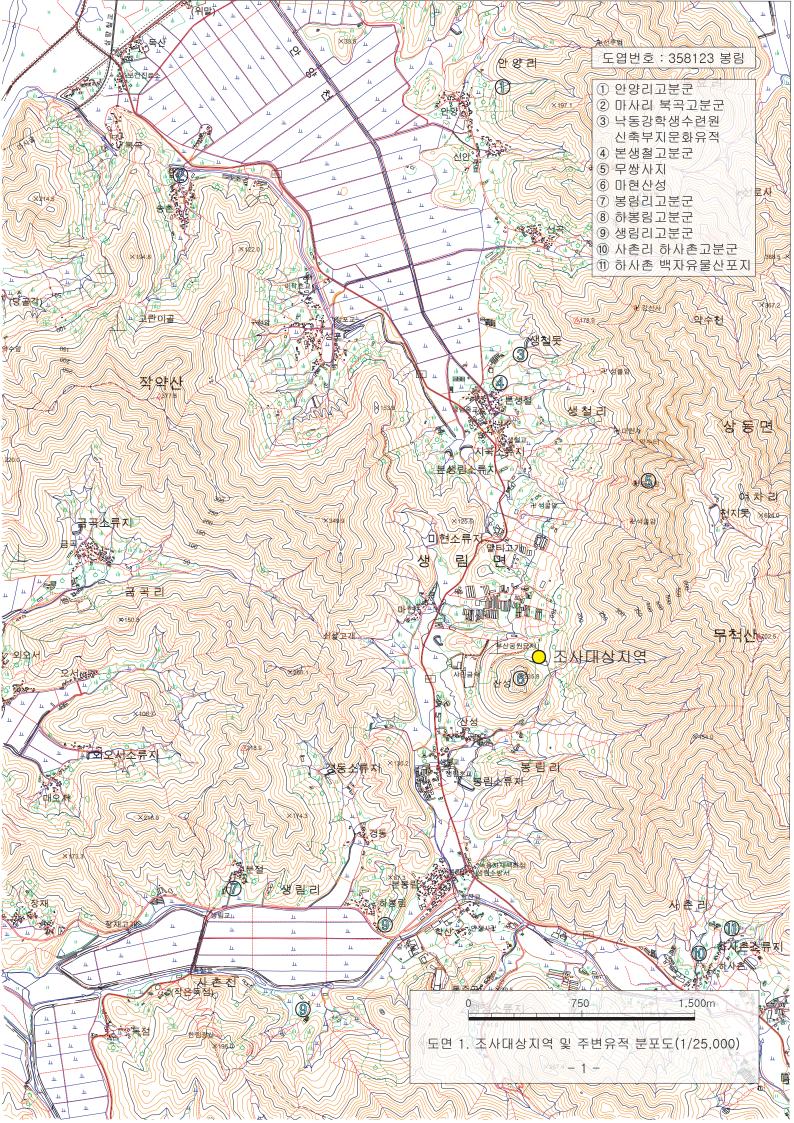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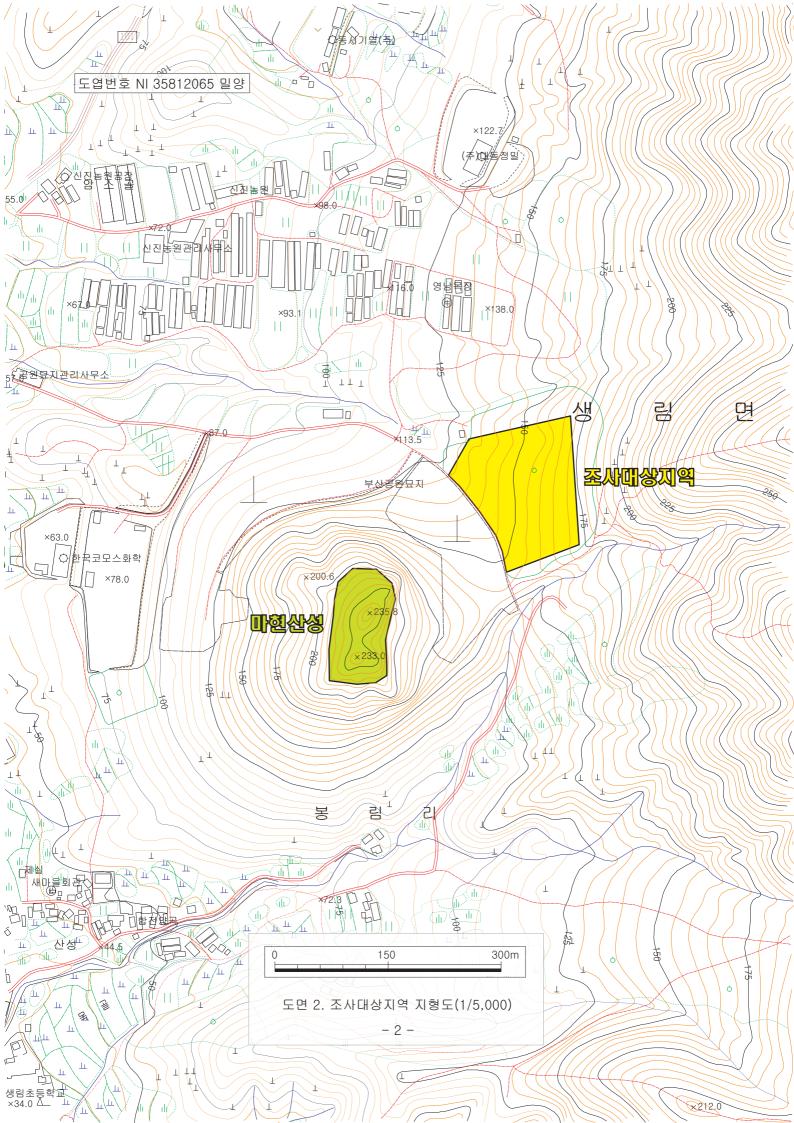
目 次

Ι.	조사개요	3
Ι.	조사지역 및 그 주변의 환경	4
	. 김해시의 자연·지리적 환경	
	. 김해시의 역사적 배경	
_	1) 김해시 歷史 槪要	
	2) 김해시의 역사관련 文獻자료	
Ш.	조사내용	10
1	. 조사지역 및 문화재현황	10
	1) 안양리고분군	12
	2) 마사리 북곡고분군	12
	3) 생림 생철리유적	12
	4) 본생철고분군	13
	5) 무쌍사지	13
	6) 마현산성	13
	7) 봉림리고분	13
	8) 하봉림고분군	13
	9) 생림리고분	
	10) 사촌리 하사촌고분군	
	11) 사촌리 하사촌백자유물산포지	
	. 고고·역사분야	
3.	. 사회·민속, 지명유래	
	1) 김해시 民俗과 문화행사	
	2) 조사대상지역(생림면 봉림리)의 지명전승	17
IV.	종합고찰 및 조사단 의견	18
참고	2문헌	19
도	관	21
초	록	27

圖面目次

1
2
23
23
24
24
25
25
26
26





I. 조사개요

■ 조 사 명 :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봉림리 공장부지 조성 문화재 지표조사

■ 조사경위: (주) 보민에서 시행 예정인 "김해시 생림면 봉림리 공장부지 조성 공사"에 대하여 문화재 보호법 제 74조의 2 동법 시행령 제 43조의 3 규정에 의거 하여 당 사업구간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를 우리 연구원에 의뢰하였다. 이에 우리 연구원은 사업시행 계획수립 시 사업구간 내 문화재 지표조사를 통하여 문화유적의 분포 현황 및 매장문화재의 잔존 여부를 사전에 조사하고, 확인된 유적에 대하여 합리적인 보존 방향을 수립하고자 본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현장조사는 사업대상지역 전 구간 및 주변지역까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현장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조사대상지역과 그 주변 일대에 대한 고문헌 및 기존에 발간된 각종 발굴조사 보고서와 학술지를 대상으로 문헌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장조사는조사대상지역을 단일지구로 설정하고 전 구간을 도보로 실시하였으며, 출토유물에관해서는 GPS포인트를 기록하여 유적의 정확한 성격파악에 주력하였다.

지표조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다.

■ 조사지역: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봉림리 101-1번지 외 1필지

■ 조사면적: 17,413m² (약 5,267평)

■ 조사기간: 2008년 9월 11일 ~ 2008년 9월 30일(착수일로부터 20일) ・사전조사 - 9일 / 현장조사: 1일 / 자료분석・정리 및 보고서 작성: 10일

■ **조사의뢰자** : (주)보민

■ 조사단구성

•조사 단장 : 신용민(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원장)

• 책임조사원 : 배덕환(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조사단장)

·조 사 원 : 최경규(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전임연구원)

·조사보조원 : 이주성(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전임연구원)

•보 조 원:이재호(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연구원)

Ⅱ. 조사지역 및 그 주변의 환경

1. 김해시의 자연 · 지리적 환경

김해시는 고대 가야문화의 발상지이자 한반도 불교의 최초 전래지로 유구한 역사를 간직한 곳으로서 최근에 들어서는 현대 도시로서 급격한 발전을 이루고 있다. 인접하고 있는 市・郡으로는 동쪽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양산시, 북쪽으로는 낙 동강을 경계로 밀양시, 남서쪽으로는 창원시・진해시와 각각 접하고 있다.

지형적으로 김해시의 북부지역은 小白山脈에서 뻗어 내린 지맥이 洛東江에 접한 낮은 산악지로 형성되어 있으며, 평지가 적은 편이다. 그리고 서부지역은 龍池峯(해발 743m), 花山(해발 798m), 屈岩山(해발 662m)과 같은 높은 산지로 에워싸여 진해시·창원시·마산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남으로는 바다와 접하고 있다. 또한 낙동강이 김해시 북쪽의 無隻山(해발 700m)에서 남쪽 神魚山(해발 630m)에 이르는 산맥의 동부 지맥을 따라 흐르고 있는데, 이로 인해 소백산맥의 여러 지맥과 접하는 북부지역과는 달리 남쪽지역은 낙동강의 지류를 따라 넓고 기름진 평야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지형구조가 예로부터 김해시를 중심으로 김해지역과 인근지역을 구분 짓는 자연경계가 되어 왔다. 특히 한반도 남단을 가로 지르는 낙동강은 동에서 남으로 흐르는 과정에서, 북쪽 花浦江과 密陽江의 합류지점에 비교적 넓은 沖積地帶를 형성하고 있으며, 다시 남으로 흐르다가 하구에 이르러서는 아주 넓은 三角洲 平野를 발달시키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삼각주 평야도 과거에는 대부분 江岸의 背後濕地 상태였으나 근대에 이르러 자연퇴적이 증가되고 제방축조와 매립 등에 의하여 지금의 넓은 김해평야 지대를 이루게 되었다고 한다.1)

전체적으로 보면 김해는 북쪽으로 鎭山인 神魚山(해발 630m)과 盆城山・慶雲山・林虎山 등의 산지가 동서로 뻗어 있으며, 남쪽으로는 낙동강의 하안평야가 전개되어 있는 지형이다. 또한 이 평야 주변을 낙동강과 그 지류인 潮滿江 및 海畔川등이 흐르고 있다. 그리고 해반천의 경우 김해시의 서부에서 남쪽으로 흐르고 있으며, 조만강은 남부, 신어천은 북부의 농경지를 관개한다.

이상과 같은 지형적 특징은 김해 지역의 역사적 발전을 가져왔는데, 대표적으로 비옥한 삼각주 평야가 형성되어 농경에 더 없이 유리한 조건을 갖추게 되었다. 또 한 대표적인 천연자원으로 '鐵'과 '天日鹽'이 생산되었는데 이 두 가지 자연조건이 김해지역의 대단한 장점이 되었다는 것이다.

김해시의 기후는 溫帶氣候地域에 속하며, 특히 남해의 海洋性氣候 영향을 받아 우리나라에서 온화한 지역 중의 한 곳에 해당된다. 연평균 기온은 14℃로서 최저기 온이 0℃ 이하인 날은 연간 60일 이하로서 제주도를 제외하면 전국적으로 가장 적 은 편에 속한다. 그리고 최고기온 30℃ 이상인 날은 연간 30일 이하로, 이는 타 지 역과 비교해 보아도 아주 적은 편이다. 연평균 강수량은 1466.2㎜로 남부지방의 연

¹⁾ 金海市・東亞大學校博物館、『문화유적분포지도-김해시』, 1998.

평균 강수량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며, 여름에 북태평양 고기압세력과 해양성 한대고기압세력의 영향으로 인하여 6월에는 장마전선을 형성하고, 7~8월에 집중호우를 동반한 태풍이 잦다.

교통상 위치를 살펴보면, 항공로인 김해국제공항 이외에 육상과 해상교통으로 남해 고속도로, 김해~양산간 고속도로 등 3개의 고속도로와 국도·지방도 등 교통망이 인근 부산항·마산항·신항 그리고 양산·창원·진해 등과 연계되어 있는 등 공항, 항만, 도로가 잘 갖추어져 있어 경상남도 동남부 지역 교통과 물류의 요충지이자, 동남아를 비롯한 국제적인 관문으로 자리 잡고 있다. 현재 김해시의 행정구역은 시청소재지인 부원동을 비롯한 1본(진영읍), 7面(한림면·생림면·상동면·진례면·주촌면·대동면·장유면), 9洞(동상동·회현동·부원동·내외동·북부동·칠산서부동·활천동·삼안동・불암동)으로 되어 있으며, 세대수는 160,458가구에 인구는 470,985명으로(2008년 5월 현재)²) 경상남도에서는 창원시 다음으로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부산의 배후 도시로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 김해시의 역사적 환경

- 1) 김해시 歷史 概要
 - (1) 先史時代早日 三國時代, 統一新羅까지

김해시 인근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일찍부터 農耕文化의 싹이 튼 대표적인 지역이다. 낙동강하구의 삼각주에 넓게 펼쳐진 평야 주위의 평지 가운데 섬같이 솟아 있는 구릉들은 先史時代의 유적 아닌 곳이 없을 정도이다.

김해지역에는 新石器時代부터 三韓時代에 이르는 각종 유적과 유물들이 도처에 산재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장유면 수가리패총・범방패총・농소리패총・봉황대패총과 예안리고분군・양동고분군・대성동고분군 등은 우리나라의 선사문화와 가야문화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유적들이다. 또한 일찍부터 鐵器를 본격적으로 사용하게 되고, 벼농사가 퍼지면서 김해의 문화는 급속도로 발전하여 기원전 2세기경에는 고대국가의 기틀을 마련하여 삼한시대에는 '狗耶國'이라는 이름으로역사에 등장하였고, 이것이 '駕洛國'3)으로 발전하였다.

²⁾ 김해시청 <홈페이지 통계자료> 참조.

³⁾ 駕洛國(加洛國): 고대 낙동강 하류에서 일어난 나라. 일명 가라, 가야 및 육가야로 불렸다. 낙동 강을 중심으로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수십 개의 부락들이 점점 작은 부족국가들을 형성하여 이른바 6가야가 되었다. 6가야는 금관가야(지금의 김해), 아라가야(지금의 함안), 고령가야(지금의 진주? 또는 지금의 경북 상주군 함창?), 대가야(지금의 고령), 성산가야(지금의 성산), 소가야(지금 의 고성)를 말한다. 그 중 금관가야의 세력이 가장 커서 다른 5국의 맹주가 되었다. 금관가야는 수로 혹은 수릉이 세워 491년 동안 계속하였다.(田溶新,『韓國古地名辭典』, 高麗大學校 民族文化 研究所, 1995)

여기에서 김해지역의 역사를 개관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야국의 건국설화를 간략하게나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듯이 가야의 건국신화는 (金)首露王의 탄강설화로 알에서 태어난 것, 알이 내려 온 龜旨峯과 관련된 것, 그리고 허황후의 도래설이 대표적이다. 이를 살펴보면 몇 가지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게 된다. 먼저 서기 42년에 가락국이 건국되었다거나, 수로왕이 158년간 나라를 다스렸다고 하는 설화를 실제 그 시대의 歷史的 事實로 보기에는 어렵다. 그러나 현재까지전해지고 있는 天孫降臨 說話, 農耕社會의 傳統과 민속의례, 즉위의례 등은 다양한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신화학과 민속학적 측면에서 볼 때 몇 가지 시사하는 바가 있다. 이는 신화나 설화를 통해 역사적 사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그 이면에 있는 고대인들의 사상과 역사적 배경 등을 보다 종합적으로 검토할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三國遺事』,「駕洛國記」에 의하면 서기 42년 (金)首露王이 가야를 건국하여 10대 491년을 이어오다가 신라 法興王 19년(532), 仇亥王(또는 仇衡王)이 신라에 투항(服屬)하니, 신라는 그를 예우하고 가락국을 '金官郡'으로 고쳐서 食邑으로 주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신라가 삼국통일 후인 文武王 20년(680)에 5京제도를 실시하면서 '金官小京'으로 개칭하였다가, 景德王 16년(757)에 이르러 비로소 '金海小京'으로 개칭하였다고 한다.4)

(2) 高麗, 朝鮮 및 近・現代

景德王 때의 행정개편은 별다른 변화없이 통일신라 전반 및 고려시대 초까지 오래 동안 지속되었음이 분명하다. 후삼국의 분열을 재통일한 고려시대 이후 조선시대까지 김해시의 행정, 명칭변화 및 陞降의 시기 등에 대해서는 『高麗史』를 비롯한『朝鮮王朝實錄』<地理志>에서부터 『輿地圖書』나 『慶尙道邑誌』에 이르기까지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고려초기 왕권강화의 일환으로 전국을 12枚으로 나누어 설치하는 행정구역개편을 실시하였다.(成宗 2년, 983) 그렇지만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지방豪族勢力들로 인하여 당시 중앙에서 지방을 실질적이고 조직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단지 처음으로 중앙에서 지방관을 파견하여 지방의 독자적인 호족들을 통제하였던 점에 의미를 두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은 成宗 14년(995)에 지방행정체계를 다시 '4都護府 10道'로 개편하였으며, 顯宗 9년(1018)에, 전국을 '4都護府 8枚 56州郡 28鎭'으로 나누게 됨으로써 고려의 지방제도는 완성되었는데, 이때비로소 통일신라 때 이루어 진 지방명칭과 행정체계에 대한 완전한 정비가 이루어지면서 기존의 체계와 명칭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 이 과정에서 김해시의 행정개편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고려 太祖 23년(940) '金海府'로 고쳤다가 '臨海縣'으로 강등되었다가, 다시 '臨海

^{4) 『}三國史記』 卷三十四 〈雜誌〉第三 地理一 新羅條 참조.

郡'으로 승격하였으며, 成宗 14년(995)에는 '金州 安東都護府'로 고쳤고, 顯宗 3년 (1012)에 지금의 이름으로 고쳤다. 元宗 11년(1270)에 방어사 金咺이 密城에서 일어난 반란을 평정한 공과 삼별초를 막았다는 공으로 '金寧都護府'로 승격되었다가, 忠烈王 19년(1293)에 현으로 강등되었으며, 同 34년(1308) 다시 '金州牧'으로 승격되었고, 忠宣王 2년(1310)에 이르러 김해부로 개편되었다.5)

조선초기에 이르러 왕권강화의 일환으로 '道 중심체제'의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행정개편이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김해시는 먼저 太宗 13년(1413)에 '金海都護府'로 승격되었다. 이때서야 이곳에 鄕校가 설치되었으며, 웅천·완포를 속현으로 대산·천읍을 부곡으로 삼았다. 『世宗實錄』〈地理志〉 기록을 살펴보면, 당시 김해부의호구 수는 1,290호, 인구는 6,642명이었다.6) 文宗 2년(1452)에는 웅신현과 완포현을 '웅천현'으로 통합하여 현감을 두었고, 世祖 13년(1467)에 지방군제 개편으로경상우도병마절도사 관하의 鎭管을 설치하였다. 宣祖 25년(1592)에 壬辰倭亂이 발발하여 가락면 죽동에 상륙한 왜군 제3군과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으나 결국 김해성이 함락되기도 하였다(김해성 전투).7) 이후 『金海府邑誌』의 기록에 의하면, 英祖 35년(1759) 김해도호부의 호구 수가 8,511호에 인구가 33,015명으로 기록되어 있어 조선전기에 비해 많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보듯이 고려시대부터 조선후기에 이르기까지 인근 지역들과 통합과 분리를 거치면서 陞降을 거듭하면서도 대체적으로 '府'단위의 행정체계를 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다가 조선말기부터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는 郡으로 행정개편되었으며, 인근 지역들과 여러 차례 개편과 편입을 거치면서 현재 김해시의 틀을 갖추게 된다.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행정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高宗 32년(1895)의 '23府制'의 지방관제 개편으로 인하여 '金海郡'으로 되었다가, 이듬해인 高宗 建陽 元年(1896)에 다시 '道體制'가 부활되면서 이때 '慶尙南道 泗川郡'으로 행정개편 되었으며, 光武 10년(1906)에 大山面이 창원군으로 편입되고, 양산군에 大上面・大下面이 편입되었다. 이후 1910년 9월, 21개 面이 13개 面으로 개편되었고,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조치에 의해 밀양군의 下南面・下東面의일부를 병합하여 14개 面과 134개 里로 개편하여 관할하였다. 1918년 좌부면과 우부면을 병합하여 金海面을 신설하고, 1928년 4월 하계면을 進永面으로 하고, 1931년 11월 김해면을 金海邑으로 승격하였다. 1942년 진영면을 읍으로 승격, 2읍 11면이 되었다. 이후 해방이 되고도 별다른 변화가 없다가 1978년 남해고속도로가 개통되던 해에 김해군의 대저면, 명지면, 가락면의 강동지구가 현 부산광역시 北區에 편입되었고, 1981년 김해읍이 김해시로 승격되면서 김해군과 분리되어 한때 김해군의 세력이 많이 약화되기도 하였다. 1983년 2월 김해군 生林面의 금곡리와 생

^{5)『}高麗史』卷五十七〈志〉第十一 地理二 참조.

^{6)『}世宗實錄』卷一百五十〈地理志〉金州都護府 戶口條 참조.

⁷⁾ 이때 四忠士를 중심으로 백성들은 끝까지 왜군과 싸웠고, 모두 장렬히 전사하였다. 사충사는 宋賓・李大亨・金德器・柳湜 등 4명으로 후일 이들을 위해 분산성에 四忠壇을 설치하고, 高宗 8년 (1871)에는 사충단비를 설치하였다.

림리 일부가 二北面에 편입되었으며, 1987년 1월 입구면이 翰林面으로 개칭되었다. 1993년에는 낙동대교가 완공 개통되었다. 그리고 1995년 도농통합시로 金海市・郡이 통합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8)

2) 金海市 역사관련 文獻자료

김해소경은 옛날 금관국(伽落國 또는 伽耶라고도 한다)이었다. 그 나라 시조수로왕으로부터 10대 왕인 구해왕이 梁 나라 中大通 4년, 신라 法興王 19년 (532)에 백성들을 거느리고 항복해 와서 그 지역이 금관군이 되었으며, 文武王 20년(680) 永隆 元年에는 소경이라고 하였다. 景德王이 김해경으로 개칭하였는데 지금(고려시대)의 金州이다.9)

史料 2: 『 』 》 奇異 駕洛國記

(상략)……나라를 大駕洛이라 하였으며 또 伽耶國이라고도 일컫었으니, 즉 여섯 가야의 하나이다. 남은 다섯 사람은 각각 돌아가 다섯 가야의 임금이 되었다. 나라 경계는 동쪽이 黄山江이요, 서남쪽이 바다요, 서북쪽이 地理山이요, 동북쪽이 伽耶山이요, 남쪽은 나라의 끝이 되었다……(하략).10)

史料 3:『 』 。 奇異 駕洛國記

(상략)······가락국이 망한 후에 이 땅은 대대로 부르는 이름이 같지 않았으니, 신라의 31대 정명왕(神文王)이 즉위한 開耀원년 辛巳(681)에는 金官京이라 하여 태수를 두었다가 그 후 259년 만에 우리(高麗) 太祖에게 귀속하여 통합된 후에는 대대로 임해현이라 하고 排岸使11)를 두었던 것이 48년이요, 다음에는 임해군 혹은 金海府라고 하여 도호부를 둔 것이 27년 동안이요, 또 방어사를 둔 것이 64년 동안이다······(하략).12)

史料 4:『』 』 志 第 地理

- 8) 김해시의 面단위 행정구역명 변천관련은 『경상남도 연구』에 잘 정리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조하면 된다.(경남대학교 출판부, 1997)
- 9) 『三國史記』卷三十四〈雜誌〉第三 地理一 新羅 金海小京條. 金海小京 古金官國(一云伽落國 一云伽耶) 自始祖首露王至十世仇亥王 以梁中大通四年 新羅法興王十九 年 率百姓來降 以其地爲金官郡 文武王二十年 永隆元年 爲小京 景德王改名金海京 今金州.
- 10)『三國遺事』卷二〈奇異〉二 駕洛國記條.
 - (상략)……國稱大駕洛 又稱伽耶國 即六伽耶之一也 餘五人各歸爲五伽耶主 東以黃山江 西南以濸海西北以地理山 東北以伽耶山 南以爲國尾……(お략).
- 11) 高麗時代 해안방어를 맡았던 관직명칭이다.
- 12) 『三國遺事』卷二〈奇異〉二 駕洛國記條.

(상략)……國亡之後 代代稱號不一 新羅第三十一 政明王卽位 開耀元年辛巳 號爲金官京 置太守後二百五十九年 屬我太祖統合之後 代代爲臨海縣 置排岸使 四十八年也 次爲臨海郡 或爲金海府置都護府二十七年也 又置防禦使 六十四年也……(於략).

金州는 원래 駕洛國이었다…(중략)…(고려) 太祖 23년(940)에 전국의 주・부・군・현의 명칭을 개편함에 따라 金海府로 되었고 후에 강등되어 臨海縣으로되었다가 다시 郡으로 승격되었다. 成宗 14년(995)에 金州로 고쳐 安東都護府가 되었고, 顯宗 3년(1012)에 지금의 명칭으로 고쳤다. 元宗 11년(1270)에 방어사 金咺이 密城 폭동을 진압하였고, 三別抄의 진출을 막아 내는데 공로가 있었다고 하여 金寧都護府로 승격시켰으며, 忠烈王 19년(1293)에 낮추어서 현으로 하였고, 34년에는 다시 金州牧으로 승격되었다. 忠宣王 2년(1310)에 전국의牧이 없어짐에 따라 다시 金海府로 되었다. 首露王의 墓(서쪽에 있다)와 招賢臺(동쪽에 있다) 또 三分水(동쪽에 있는 황산강, 민간에서는 三叉水라고 부른다)가 있다. 주현에 소속된 군이 2개, 현이 3개 있다.13)

史料 5:『 』 地理志 金海都護府

본래 駕洛國이다…(중략)…나라 이름을 駕洛, 또는 伽倻로 일컫다가 뒤에 金官國으로 고쳤다. 그 나라는 동쪽으로 黃山江에 이르고, 동북쪽으로 伽倻山에이르며, 서남쪽은 큰 바다에 닿았고, 서북쪽은 지리산을 경계로 하였다…(중략)…신라 法興王이 仇亥의 항복을 받아 객례로써 대접하고, 그 나라를 食邑으로 삼게 하고, 이름을 금관군으로 하였는데, 文武王이 처음 金官小京을 설치하였고, 景德王이 金海小京으로 고쳤으며, 고려 太祖 23년(940) 庚子에 김해부로고쳤다. 뒤에 강등시켜 臨海縣으로 하였다가, 또 올려서 군으로 하였고, 成宗14년(995) 乙未에 金州 安東都護府로 고치고, 顯宗 3년(1012) 壬子에 강등시켜 金州防禦使로 삼았다. 元宗 11년(1270) 庚午에 방어사 김훤이 密城의 난을평정하고, 또 삼별초를 막아 공이 있는 까닭으로 올려서 金寧都護府로 삼고, 김흰을 발탁하여 都護로 삼아 진수하게 하였다. 忠烈王 34년(1308) 戊申에 金州牧으로 올렸다가, 忠宣王 2년(1310) 庚戌에 여러 牧을 없앰에 따라 다시 김해부로 하였는데, 本朝에서 그대로 따랐다가, 太宗 13년(1413) 癸巳에 例에 따라도호부로 고쳤다……(하략),14)

史料 6: 』 金海府邑誌

[建置沿革] 본래 (金)首露王의 가락국으로 仇亥王에 이르러 신라 법흥왕에게 항복하니 法興王이 객으로 예대하고 그 나라를 없앤 뒤 金官郡으로 불렀다. 文

^{13)『}高麗史』卷五十七〈志〉第十一 地理二.

金州本駕洛國···(冬략)···太祖二十三年 改州府郡縣名 為金海府 後降為臨海縣 又陞為郡 成宗十四年 改為金州 安東都護府 顯宗三年 更今名 元宗十一年 以防禦使金咺 平密城之亂 又拒三別抄有功陞為金寧都護府 忠烈王十九年 降爲縣 三十四年 陞爲金州牧 忠宣王二年 汰諸牧 爲金海府 首露王墓(在州西) 招賢臺(在州東·····) 又有三分水(府東黃山江···(冬략)···俗稱爲三叉水) 屬郡二 縣三.

^{14)『}世宗實錄』卷一百五十〈地理志〉金海都護府.

本駕洛國···(중략)···國號駕洛 又稱伽倻 後改爲金官國 其國東至黃山江 東北至伽倻山 西南際大海 西北界智異山···(중략)···新羅法與王 即受仇亥降 待以客禮 其國爲食邑 號金官郡 文武王始置金官小京景德王改爲金海小京 高麗太祖二十三年庚子 改爲金海府 後降爲臨海縣 又陞爲郡 成宗十四年乙未 改爲金州 安東都護府 顯宗三年壬子 降爲金州防禦使 元宗十一年庚午 以防禦使金咺 平密城之亂 又拒三別抄有功 陞爲金寧都護府 仍擢暄爲都護以鎭之 忠烈王三十四年戊申 陞爲金州牧 忠宣王二年庚戌 汰諸牧 復爲金海府 本朝因之 太宗十三年癸巳 例改爲都護府·····(奇략).

武王이 金官小京을 설치하였다. 고려 太宗¹⁵⁾은 府로 강등시켰고, 뒤에 또 臨海縣으로 강등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군으로 승격시켰다. 成宗은 金州 安東都護府로 고쳤으나, 顯宗이 防禦使로 강등하였다. 元宗 때 방어사 김훤이 밀성반란을 평정하고 또 삼별초를 막은 공이 있다는 것으로 金寧都護府로 승격하고 훤을 발탁하여 도호로 삼아, 진수하게 하였다. 忠烈王 2년(1276) 안렴사 劉顥를 살해한 일로 현으로 강등되었다가 뒤에 다시 金州牧으로 승격시켰다. 忠宣王 2년(1310)에 여러 牧을 선별・폐지하면서, 다시 金海府로 하였다. 本朝(조선)에서는 그대로 하였다.

[郡名] 駕洛・伽倻・金州・金官・臨海・金寧・盆城이라고도 한다.16)

III. 조사내용

1. 조사지역 및 주변의 문화재 현황

금번 지표조사는 '김해시 생림면 봉림리 공장부지조성'에 따른 문화재 지표조사로 조사지역에 해당하는 곳은 '김해시 생림면 봉림리 101-1번지 일원'이다.

생림면은 지리적으로 김해시의 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상동면, 서쪽으로는 한림면과 접하고, 북쪽으로는 낙동강을 경계로 밀양시 삼량진읍, 남쪽으로는 김해시 삼계동과 각각 접하고 있다. 김해시청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15km 정도 떨어져 있으며, 지형상 무척산과 작약산 등의 낮은 산지로 둘러 싸여 있는 산간지역에속한다. 그리고 이 산지 사이로 작은 하천들이 북쪽으로 흘러 낙동강에 합류한다. 주산업은 농업으로 북쪽의 평야지대를 중심으로 쌀・보리와 딸기를 포함한 과일재배등이 이루어지고 있고 산지를 개간하여 한우・돈・양계업 등 축산업도 성행하고 있다. 교통망은 밀양~김해간 국도 58호선이 중앙을 지나고 있으며 대동~대구간 고속도로가 개통되어 교통의 요충지로 공장의 유입이 이루어지는 등 점진적인 발전이예상되는 지역이다. 행정구역상 총면적은 49.93km이며 면소재지인 봉림리를 비롯한 9개 里를 관할하고 있다.

생림면 봉림리에 駕洛國의 시조인 金首露王 때 축조된 것으로 전하는 馬峴山城을 비롯하여 가야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삼국시대의 고분 등을 통해 볼 때, 그 역사

^{15)『}高麗史』,『世宗實錄』,『新增東國輿地勝覽』,『輿地圖書』,등 여타 문헌에서는 太祖로 기록되어져 있어『慶尙道邑誌』에 기록된 '太宗'은 편찬자의 誤記로 보인다.

^{16) 『}慶尙道邑誌』 <金海都護府>.

[[]建置沿革] 本首露王駕洛國至仇亥王降于新羅法興王 待以客禮 國除 改號金官郡 文武王 改置金官小京 高麗太宗降爲府 後又降爲臨海縣 未幾陞爲郡 成宗改金州安東都護府 顯宗降爲防禦使 元宗以防禦使金 晅平密城之亂 又拒三別抄有功 陞爲金寧都護府 忠烈王二年 以殺按廉使劉顥 降爲縣 後陞金州牧 忠宣王二年 汰諸牧 復爲金海府 本朝因之.

[「]郡名」駕洛 伽倻 金州 金官 臨海 金寧 盆城.

가 매우 오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生林面'이란 지명은 조선후기에 생겨나 지금까지 전승되고 있는 명칭으로, 본래부터 김해지역 관할 중 하나였다. 지역의 역사는 오래된 것으로 여겨지지만, 그 이전에는 마현고개를 중심으로 북쪽은 '이작', 그 아래쪽은 '일작·생철·봉림'이라 하였다가, 이 중 生鐵의 '生'字와 鳳林의 '林'字를 합하여 '生林(面)'이 되었다. 『興地圖書』〈慶尚道-金海〉坊里條에는 '생림면은 官門에서 45里 쯤 떨어져 있다'고 기록되어져 있고,17)『慶尚道邑誌』〈金海〉의 坊里條에도 역시 유사한 내용으로18) 위치와 지명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 최소한 18세기 이전에 지역의 명칭이확정되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沙村·羅田·鳳林·金谷·生鐵·都要·馬沙 7개里를 관할하였으며 이후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조치에 의해 下北面의 龍德里와 밀양군의 下東面 일부를 흡수하여 현재의 행정구역인 9개 里로 개편되었다. 이때 개편된 행정구역에 대해서는 『嶠南誌』〈金海郡〉邑面 里洞條에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당시 생림면에 속한 鳳林里를 비롯한 9개 里의 명칭들이 기록되어있다.19) 이러한 행정구역 체계는 1983년 금곡리와 봉림리의 장재마을이 이북면으로 이속된 것 외에 별다른 변화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생림면 일대에 분포되어 있는 문화재는 다음과 같다.

[丑]	[] 생	림면	일대	문화재	분포현황
------	------	----	----	-----	------

연번	명칭	소재지	시대	지정여부
1	안양리고분군	생림면 안양리	삼국	
2	마사리 북곡고분군	생림면 마사리 북곡마을	삼국	
3	생림 생철리유적	생림면 생철리 13번지 일원	고려~조선	
4	본생철고분군	생림면 생철리 본생철마을	삼국	
5	무쌍사지	생림면 생철리	미상	
6	마현산성	생림면 봉림리 산 102	미상	도기념물 제150호
7	봉림리고분	생림면 봉림리	삼국	
8	하봉림고분군	생림면 생림리 하봉림마을	삼국	
9	생림리고분	생리면 생림리 산 190	삼국	
10	사촌리 하사촌고분군	생림면 사촌리	삼국	
11	하사촌 백자유물산포지	생림면 사촌리 하사촌마을	조선	

^{17)『}輿地圖書』〈慶尚道-金海〉坊里條.

(상략)……生林面 距官門四十五里……(하략).

(상략)……生林面 四十五里……(하략).

(상략)……生林面 : 鳳林里 沙村里 羅田里 金谷里 生鐵里 都要里 安養里 馬沙里 生林里……(하략).

^{18) 『}慶尚道邑誌』 〈金海〉 坊里條.

^{19)『}嶠南誌』卷之五十一〈金海郡〉邑面里洞條.

1) 안양리고분군

소재지: 김해시 생림면 안양리

안양리고분군은 김해시의 최북단에 위치한 작약산과 낙동강변의 사망산 사이에 위치한 삼국시대 대규모 고분군이다. 생림면 생철리에서 1017번 도로를 따라 북쪽으로 가면 도요리와 창암마을로 가는 갈림길이 있는데 여기서 오른쪽 도요리로 가는 길목에 위치하며 이미 개설된 도로 양쪽으로 이어지는 구릉에 해당한다. 현재도로 북쪽 첫 번째 구릉 곳곳에 삼국시대 토기편이 흩어져 있고 잡목속에 봉토의흔적이 일부 확인된다. 그리고 능선의 정상부는 기반암이 노출되어 있고 과수원과받으로 경작되고 있다. 2002년도에 경남문화재연구원에 의해 고분군 일부가 조사되었다. 발굴조사 결과, 수혈식석곽묘 71기와 조선시대 목관묘 2기 등 73기의 매장유구가 조사되었으며 토기류를 비롯한 철기류 등이 출토되었다. 유적의 시기는 대체로 4세기 후반에서 6세기 전반에 해당된다.

2) 마사리 북곡고분군

소재지 : 김해시 생림면 마사리 북곡마을

작약산의 북쪽에 형성된 구릉의 정상부와 북쪽사면을 따라 입지하고 있다. 서쪽으로는 현재 마을과 경작지가 형성되어 있고 서남쪽으로 1km 가량 이격된 곳에 마사왜성이 있다. 동쪽으로는 낙동강의 지류인 안양천을 따라 소규모의 곡간평야가형성되어 있고 이 평야를 사이에 두고 안양리고분군1, 안양리고분군2, 본생철고분군이 위치하고 있다. 유구는 비교적 잔존상태가 양호한 편이나 구릉을 따라 후대의분묘가 들어서면서 유적의 일부가 훼손되었고, 도굴된 흔적도 확인된다. 하부구조는석곽으로 판단되고, 채집된 유물은 구연부 밑에 두조의 돌대가 있고 파수가 달린컵형 토기편과 파상문이 시문된 장경호 경부편 등이다.

3) 경남 낙동강 학생수련원 신축부지 문화유적

소재지: 김해시 생림면 생철리

봉림의 북쪽으로 높고 길게 뻗어 있는 무척산에서 분지상의 동쪽 평야 지대로 뻗어 내린 능선의 말단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7년 우리연구원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려~조선시대 건물지와 소성유구 등이 확인되었다. 건물지에서는 초석과 적심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기와 또한 소량 출토되었으나 건물지의 잔존상태와 기단석의 축조방법 등으로 미루어 관청과 사지와는 다른 일반 건축으로 가옥과 같은 구조와 배치였음을 짐작케 한다.

4) 본생철고분군

소재지: 김해시 생림면 생철리 본생철마을

무척산의 정상에서 서쪽으로 본생철 마을이 위치하며 마을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주변에 철광석을 개발하던 곳이 많이 남아 있다. 금관가야지역의 철은 고대부터 이지역에서 생산하였을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분이 입지하고 있는 구릉은 감나무 과수원으로 개간된 상태이다. 마을의 북서쪽은 낙동강의 배후습지로 지금은 비교적 넓은 평야지대를 형성하고 있으나, 나머지 지역은 모두 산으로 둘러쌓여 있다. 이 마을 뒤쪽 낮은 구릉지에는 과수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이곳에서 회청색 경질토기편들이 다량 흩어져 있으나 지표상에서 확인된 유구는 없다.

5) 무쌍사지

소재지: 김해시 생림면 생철리

무쌍사지로 추정되는 곳에 초석이 일부 남아있으나 현재 축조시기 미상의 모은암이 자리하고 있다. 일설에는 김수로왕이 그 모친을 위하여 창건하였다는 전설이 전해오고 있다. 주위에서 고려시대의 기와편과 청자, 분청사기편 등이 수습되고 있다.

6) 마현산성

소재지 : 김해시 생림면 봉림리 산 102번지

봉림리 뒷산에 자연지형을 이용하여 쌓은 석축산성으로 동북부는 절벽을 이용하였고 남서부는 석축으로 쌓았으나 현재 대부분 붕괴되었다. 가락국 수로왕때 축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불확실하며 산성 규모는 둘레 약 600m, 높이 약 2m이다.

7) 봉림리고분

소재지: 김해시 생림면 봉림리

직경 약 8m, 봉분 높이 약 3m의 규모를 지닌 가야시대 고분군으로 추정되나, 현재는 지형변화로 인해 사라진 유적이다.

8) 하봉림고분군

소재지 : 김해시 생림면 생림리 하봉림

낮은 야산이 마을을 둘러싸고 있으며 서쪽편으로 형성된 해발 40m 정도의 낮은

구릉 위에 고분군이 입지하고 있다. 산의 정상부에는 근·현대분묘들이 있고 아래쪽은 대부분 감나무 과수원으로 개간되었다. 확인된 유구가 없어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마을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과거 경작시 이곳에서 토기가 출토되어 봉림초등학교에서 소장하고 있다고 전한다.

봉림초등학교에 이 곳 출토지라고 기재된 6세기 이후의 장경호 1점과 단각고배 3점이 전시되어 있고 1998년 동아대학교 박물관의 지표조사에서도 고배 구연부와 동체부에 해당하는 회청색 경질토기편 2점이 채집되었다.

9) 생림리고분

소재지 : 김해시 생림면 생림리 산 190번지

이 고분은 하봉을 가운데 두고 하봉림고분군과 서로 마주보고 있다. 봉토 높이 약 2.5m, 직경 약 10m 크기의 고분으로 삼국시대 고분으로 추정된다.

10) 사촌리 하사촌고분군

소재지 : 김해시 생림면 사촌리

봉림면에서 남쪽으로 약 2km 정도 가면 하사촌이라는 표비석이 보인다. 이 표비석 앞에 난 마을 진입로를 따라 위쪽으로 가면 작은 계곡이 있고 계곡 양 옆으로 과수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마을에서부터 과수원까지 회청색 경질토기 파편들이 흩어져있다. 아마도 이 마을과 주변의 구릉, 야산 일대가 고분군이 형성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채집된 토기편들은 주로 삼국시대 후기에서 통일신라시대에 이르는 유물들이고, 그 외 고려시대의 것도 있다. 주변에는 고려~조선시대의 도요지가 있다.

11) 사촌리 하사촌백자산포지

소재지 : 김해시 생림면 사촌리

유적은 사촌리 하사촌 고분군의 동북쪽 하사촌마을에 위치한다. 현재 감나무 과수원으로 개간되었고, 과수원을 중심으로 백자편이 채집되고 있는데 유구는 파괴된 것으로 보이며 채집유물로 보아 백자요지라고 판단된다.

2. 고고 • 역사 분야

조사대상지역은 해발 702.5m의 무척산에서 서쪽으로 뻗어 내린 능선의 말단부에 해당되며 남쪽으로는 마현산성이 입지하고 있으며 현재 부산 기독교 공원묘지가 조성되어 형질변경이 이루어진 상태이다. 또한 마현산성에서 북동쪽으로 내려오는 사면의 끝자락

에 형성된 곡부를 사이에 두고 입지하며 행정구역상 김해시 생림면 봉림리 101-1번지 일대로 해발 130m에서 175m 상에 위치하고 있다.

마현산성은 경상남도 기념물 제 150호로 해발 약 215m 정도의 비교적 경사가 심한 독립된 야산의 정상부분을 두른 테뫼식 산성으로, 가락국 수로왕때 축조한 것으로 전해 지고 있으나 확실하지 않다. 지형을 최대한 이용하여 쌓은 산성으로 남북으로 긴 평면 형태를 띠며 정상부쪽인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은 사모봉의 구조이다. 동북부는 천연암 벽을 최대한 활용하고 남서부 위주로 석축하여 조성하였다. 성벽이 부분적으로 붕괴되었 으나 비교적 잔존상태가 양호하며 북쪽과 남쪽에는 각각 문지가 남아 있다. 현재 산성의 규모는 둘레 약 600m, 높이 약 2m이다.

조사대상지역의 주변에는 안양리고분군, 생림리고분군, 하사촌고분군, 하봉림고분군, 본생철고분군 등 다수의 삼국시대 고분군이 분포하고 있다. 상기한 고분군들은 주로 해발 50~60m 정도의 낮은 구릉 정상부 혹은 사면에 입지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사전조사에서 검토한 후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산 기독교공원 묘지와 인접한 조사대상지역의 과거 지형도를 참조하면 이곳은 과수 원으로 이용되었으나 현재는 폐기되고 잡목이 우거져 있었다. 조사는 전 구간을 도보로 실시하였으며, 조사대상지역 대부분이 사람의 통행이 불가할 정도로 잡목과 수풀이 우거져 있어 지표조사에 어려움이 많았다. 조사의 진행은 조사대상지역의 능선 높은 곳에서 (해발 175m선) 하향식의 조사를 기본으로 하면서, 지형파악 및 지표면의 유물, 유구를 확인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조사대상지역의 남동쪽 상부(해발 168m상)에서 지형을 따라 약 6~10m정도의 너비로 계단상의 석축시설이 확인되었다. 이 석축시설은 소형 할석을 이용하여 축조하였으며, 높이는 약 60cm, 가장 긴 부분이 약 20m정도이다. 석축시설의 잔존 상태와 축조방법 등으로 볼 때 근대에 조성되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과수원으로 이용될 당시에 경사면을 조정하여 단을 조성하고 구획단의 토사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축대시설로 보인다. 주변의 소나무 수령으로 추정컨데 20~30년 전에 과수원은 폐기된 것으로 보인다. 조사대상 지역의 북서쪽 사면 부산 기독교 공원묘지와 가까운 곳에서는 빗물 등의 유수에 의해침식되어 지표면 하부의 토층퇴적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 이곳을 통해본 조사대상지역의 토층퇴적 양상은 표토 아래에 바로 명황색의 생토층이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후대의 경작 행위와 자연적인 침식과 풍화로 많은 삭평이 이루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표조사 결과, 지표면에서 유물은 수습되지 않았으며, 유구 등의 매장문화재의 흔적은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

3. 사회·민속, 지명유래 분야

1) 김해시 民俗과 문화행사

김해지역의 대표적인 제례의식으로는 구산동의 金首露王陵에서 시작되는 '金海

崇善殿 祭禮'(春祭・秋祭, 도무형문화재 제11호)가 있다. 매년 봄과 가을 모두 2차 례의 祭禮는 崇善殿에서 행해지는데, 숭선전은 가락국의 시조인 김수로왕과 허황후두 분의 위패를 봉안한 곳으로, 흔히 수로왕릉전역을 의미하기도 한다. 왕릉 자체는 납능이라 하고 숭선전 앞에는 숭안전이라 하여 왕묘가 없는 2대에서 9대까지의 8 왕과 왕비 16분의 위패를 모셔 두고 있다. 수로왕릉은 국가 사적 제73호로 지정되어 국가에서 제향을 지내고 기타 왕은 金海 金氏 문중 제사 때 같이 지내며 執禮는 따로 하고 있다.

그리고 민속가면극인 〈金海五廣大〉는 가락면에서 음력 정월대보름날 밤에 연희되던 탈놀이로, 〈東萊野遊〉와 〈草溪 대광대탈놀음〉을 모방한 것이라고 전하는데,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동래·진주·마산의 오광대에서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보인다. 〈김해 결궁치기 놀이〉는 장유면 유하리 버등마을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김해시 일원에서 행해지고 있다.

김해지역의 세시풍속과 전승놀이 중 지역성을 잘 반영하는 특색 있는 몇 가지를 살펴보면, 진례면과 장유면 등지에서 전승되는 〈다리밟기〉·〈봉선화 물들이기〉· 〈꽃이 먼뎅이 놀이〉·〈칠석놀이〉·〈알씨름〉 등이 있으며, 이 외 타 지역과 마찬가 지로 줄다리기, 地神밟기, 농악놀이, 연날리기, 쥐불놀이, 윷놀이, 돈치기, 달맞이, 달집태우기 등 다양한 놀이들이 전승되고 있다.

김해에서 열리고 있는 각종 문화행사 및 축제를 살펴보면, 먼저 <가락문화제>(음력 3월 14일~17일)를 들 수 있는데 이는 김해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축제로서 가락국을 건국한 金首露王을 추모하고 지역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金海崇善殿 祭禮'(春祭)와 같은 시기에 벌어진다. 또한 특산품인 도자기를 축제로 접목시켜 <김해 분청도자기축제>를 행하고 있다. 진례면을 중심으로 1996년부터 시작되었으며, 현재 80여 개의 업체에서 가야토기 재현을 비롯하여 다양한 종류의 도자기를 생산하고 있다. 김해지역에서 도자기가 발전하게 된 것은 태토를 쉽게 얻을수 있었다는 장점과,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도공기술이 승화된 것으로 이축제는 이를 내실 있는 지역행사로 발전시킨 것이다. 이 외 <진영단감축제>, <연지 봄축제>, <김해예술제> 등 김해시의 지역성을 반영한 특색 있는 문화행사들이 펼쳐지고 있다.

김해지역을 本貫으로 하는 姓氏로는 김해의 시조인 金首露王과 許皇后에서 비롯되는 金海金氏와 金海許氏를 시작으로 金寧金氏・金海宋氏・盆城裴氏 등이 있다. 또한 김해지역에 옛날부터 큰 집성촌[大姓]을 이루고 있는 성씨로는 昌寧曺氏・光州盧氏・盆城許氏・淸州宋氏가 있었다.²⁰⁾

²⁰⁾ 이 외에『新增東國輿地勝覽』을 비롯하여『輿地圖書』 등의 문헌에도 김해지역의 姓氏들이 기록되어 있다.

2) 조사대상지역(생림면 봉림리)의 지명전승21)

鳳林里의 지명유래에 관해 살펴보면, 『金海地理志』 22)에는 "뒷산에 鳳凰이 숲으로 내려오는 모양의 明堂이 있어 文武를 兼全하고 世代가 끊이지 않을 자리라고 하기 때문에 생긴 이름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閔肯基는 『金海의 地名』 23)에서 "봉림리의 '鳳'은 동쪽과, 동쪽에 있는 산・들・마을 등을 뜻하는 '술~〈로'의변이형태 '새'를, '林'은 '숲'을 표기하기 위한 借字로 추측된다. '里'는 마을을 뜻하는 우리말 '말'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그러므로 봉림리는 '새숲말'의 차자표기인데, 그 뜻은 '동쪽 숲 부근에 형성된 마을'을 뜻한다. 이는 翰林面 金谷里의 동쪽 편에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생겨난 지명으로 생각된다."라 하였다. 『金海地理志』의 설명이 객관적으로 보여진다.

전해지는 마을이름으로는 〈馬峴(말-티)〉・〈본-봉림(역촌)〉・〈봉림〉・〈산-성(안성)〉・〈퉁주-골(통점골, 행정)〉・〈鶴山〉・〈下鳳林〉 등이 있다. '본봉림'은 조선 후기 금곡역이 이곳으로 옮겨 왔기 때문에 역촌이라고도 불렀다. '퉁주골'은 봉림리남쪽에 있는 마을로 퉁쇠가 많이 났었고 은행나무 정자가 있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학산'은 뒷산인 학산에 학이 많이 모여 살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바위이름으로는 〈매-방우〉·〈맷돌-방우〉·〈앙구-방우〉·〈질매-방우〉 등이 있다. '질매-방우'는 봉림마을 동쪽에 있는 〈봉오-등〉이란 등성이에 있는 바위로, 질매(길마)처럼 생겼다고 붙여진 이름이다. '매-방우'와 '맷돌-방우'는 모두 질매방우북쪽에 위치해 있는데, 그 생김새가 각각 매와 맷돌을 닮았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고개 이름으로는 <말티-고개>와 <쇠실-고개>가 있는데, '말티-고개'는 말티에서 금곡리로, '쇠실-고개'는 봉림에서 금곡리로 넘어가는 고개의 이름이다.

산 이름으로는 <대마-산>・<산성-산>・<안-산> 등이 있다. '대마-산'은 퉁주골 동쪽에, '산성-산'은 봉림 북쪽에, '안-산'은 학산 동쪽에 자리 잡고 있다.

이외에 〈봉림-교〉라는 다리이름과 〈봉림-저수지〉라는 저수지의 이름, 〈선원-대 (선은대)〉라는 臺의 이름 등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²¹⁾ 조사지역에 전승되는 지명에 대해서는 『한국지명총람8-경남 I 』(한글학회, 2000), 『金海의 地名』(민 긍기, 2005), 〈김해시청 홈페이지 자료〉 등을 참고로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다. 기타 상세한 것들에 대해서는 상기의 자료들을 참고하면 된다.

²²⁾ 李炳泰, 『金海地理志』, 金海文化院, 1991.

²³⁾ 閔肯基, 『金海의 地名』, 金海文化院, 2005.

IV. 종합고찰 및 조사단 의견

이상 김해시 생림면 봉림리 공장부지 조성에 따른 문화재 지표조사를 문헌적, 고 고학적 자료를 통하여 검토하였다. 지표조사는 육안조사라는 한계가 있지만 상기의 내용을 요약하여 조사단의 의견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조사대상지역은 무척산에서 서쪽으로 뻗어 내린 능선 말단부의 사면으로 마현산성이 위치하고 있는 야산의 북동쪽 사면과 이어지는 곳에 해당된다. 마현산성과 인접하고 있으며 주변에 삼국시대 고분군이 다수 입지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매장문화재가 검출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진행하였다.
- 2. 지표조사 결과, 조사대상지역은 과수원 조성 등 후대의 경작행위로 인해 원지형이 거의 훼손되었으며, 유수에 의해 지표면이 침식된 부분의 토층 퇴적양상이 지표면 아래 바로 풍화암반토가 드러나 있는 상태로 보아 매장문화재의 존재를 전혀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지형적으로도 주변에 산재하는 삼국시대 고분군들에 비해상당히 높은 고지대에 위치함으로 고분군이 입지할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조사대상지역에는 인간의 문화활동과 관련된 정후가 보이지 않으므로제반 행적적인 절차를 거친 후에 예정된 공사를 시행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된다.
- 3. 다만, 도기념물 주변 300m 이내의 범위에서 형상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도문화재보호조례 제25조 4항, 동 시행규칙 제18조 8항에 의거하여 도지정문화재에 대해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조사대상지역 역시경상남도 기념물 제15호인 마현산성이 불과 150m 남짓한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상기의 절차를 거친 후 공사 시행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아울러 공사 진행 중에 지표조사상에서 확인되지 않은 매장문화재가 발견될 시에는 지체없이 공사를 중단하고 관련기관에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廣開土王碑(文)』

『三國史記』

『三國遺事』

『高麗史』

『世宗實錄』〈地理志〉

『增補文獻備考』

『新增東國輿地勝覽』

『東國通鑑』

『東國歷代總目』

『輿地圖書』

『慶尙渞邑誌』

『嬌南誌』

『三國志』 <魏書> 東夷傳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韓國民俗大觀 1, 2, 3』, 1981.

潘鏞夫・金元經,『가야문화연구』, 1991.

韓國文化院聯合會 慶尚南道支部,『慶尚南道民俗集』, 199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91.

金海文化院,『古文獻 金海史料集 1, 2, 3』, 1991~1993.

권상노, 『韓國地名沿革辭典』, 이화문화출판사, 1994.

田溶新,『韓國古地名辭典』,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1995.

韓國古代史硏究會 편, 『三韓의 社會와 文化』, 신서원, 1995.

東亞大學校博物館、『金海德山里民墓群』、1995.

金海文化院,『增補 金海地理志』, 1996.

경남대학교 경남지역문제연구원 편. 『경상남도 연구』. 1997.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편,『加耶關係文獻考』, 1998.

金海市・東亞大學校博物館、『文化遺蹟分布地圖-金海市』、1998.

金海文化院,『金海金石文總覽』,金海市,1999.

강명환, 『한국의 건축문화재』-경남편, 기문당, 1999.

안장헌ㆍ이상해, 『書院』, 열화당, 199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慶尙南道의 鄕土文化-(上)・(下)』, 1999.

김태식. 『미완의 문명 7백년 가야사』. 푸른역사. 2002.

國史編纂委員會,『韓國史1-총설』, 2002.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8-경남편 I』, 2003.

慶南文化財研究院,『金海 農所里遺蹟』, 2004.

進禮面誌編纂委員會,『進禮面誌』, 2004.

閔肯基,『金海의 地名』,金海文化院,2005.

圖版



도판 1. 조사대상지역 원경(북서→남동)



도판 2. 조사대상지역 전경(북→남)



도판 3. 마현산성 전경(북→남)



도판 4. 조사대상지역 근경(남서→북동)



도판 5. 과수원 석축시설 전경(서→동)



도판 6. 우수에 의해 침식된 부분(서→동)



도판 7. 조사대상지역 토층 양상(남→북)



도판 8. 조사광경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서

	الم الم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봉림리			١١٥١ - ١٦١ ١٥٥٥ ١ ١ ١ ١٥٥٥ ١ ١			
	사 업 명	공장부지 :	공장부지 조성 문화재 지표조사			사업기간 2008.9.11~2008.9.30		
사업	사업지역	경상남도 김해	시 생림면 충	흥림리 101-1 <u></u>	번지 외 1필	고 필지		
내용	면 적	전체사업면적	$17,413\mathrm{m}^2$	지표조사면적				
	사업시행자	 원발주기관	(주)보민	지표조사	기관명:재)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711171071	0 2 1 / 1 0	(1/4-1	의뢰기관	전화번호	-번호 :055)265-9150~3		
		고고,역사분야		책임조사원	배덕환	조사원· 조사보 조원	최경규, 이주 성, 이재호	
		민속분야		책임조사원		조사원· 조사보 조원		
지표		수중분야		책임조사원		조사원· 조사보 조원		
조사		고건축분야		책임조사원		조사원· 조사보 조원		
		자연문화재		책임조사원		조사원· 조사보 조원		
	조사기간	2008. 9. 11	2008. 9. 11 ~ 2008. 9. 30					
	조사비용 *계약금액문		00,00 민속 0원 분야	_원 수중 분야		고건축 분야	원	
	주변문화재 -	지정문화재		기념물 제150호				
		비지정문화재 림리고분군(역		쌍사지(약 1.2km 이격), 본생철고분군(약 1.7km 이격), 봉				
조사	조사결과			약 2km 이격), 하봉림고분군(약 2km 이격), 하사촌km 이격), 하사촌백자유물산포지(약 2km 이격)				
1	사업부지내	지상문화재	교문권(약 ZKIII 이식), 아자는 박사규물권로시(약 ZKIII 이식) 없음					
2-1	문화재	매장문화재	없음					
		건축물	없음					
	조사결과	민속자료 없음						
		조사대상지역은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봉림리 101-1번지 일원으로, 현장조						
		사와 주변 자연환경을 참고할 때, 과수원 조성 등 후대의 경작행위로 인해 원지						
조사기관		형이 거의 훼손되었으며, 상당히 높은 고지대에 위치함으로 고분군이 입지할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지표조사 결과 유구나 유물의 흔적은 확인하지 못						
	합 의견	하였으나 경상남도 기념물 제150호인 마현산성이 불과 150m 거리에 위치하고						
ㅇㅂ 귀인		있는데, 도 기념물일 경우 300m 이내의 범위에서 형상변경이 수반될 시 반드시						
		"문화재 영향 검사"를 실시해야하므로 조사대상지역 역시 상기의 절차를 거친 후						
	트이브린	공사 시행여부를	반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	+ .			
_기타	특이사항							

2008 9 27 1

지표조사기관명:



(財)東亞細亞文化財研究院 地表調查報告 第90輯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봉림리 공장부지 조성

文化遺蹟 地表調査 報告書

인 쇄 일 / 2008년 9월 27일 발 행 일 / 2008년 9월 29일

編輯·發行/點東亞細亞文化財研究院

630-810 경남 마산시 양덕동 96-20

동문빌딩

TEL: (055) 265-9150~2 FAX: (055) 265-9154

E-mail: feaci03@hanmail.net

인쇄처/부광사

641-824 경남 창원시 사림동 11-1

TEL: (055) 285-1834